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및 관련변인 연구

A Study on the Marital Communication of Elderly in Couple Households and the Related Variabl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강 사 박 은 아

명예교수 이 정 우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Park, Eun-A

Emeritus Professor : Lee, Jeo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marital communication method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life for the elderly couples. For this study we considered variables affected on the marital communication of elderly couples. I investigated 394 elderly men and women living with only their spouse and analyzed data with SPSS PC WI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ere high lev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elderly males and females who lived with the spouses without adult children.
- 2)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elderly couples' communication were as follows: for the elderly males,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self-esteem, and gender role attitude; for the elderly females,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health condition, tendency toward relationships, and intention to keep the elderly couple household.

▲주요어(Key Words) : 부부단독가구 노인(elderly in couple household), 의사소통(communication), 부부간 친밀감(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1.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와 더불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자녀 세대의 핵가족 선호와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의 변화로 인해, 또한 자녀들의 독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단독가구를 형성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노인 세대 스스로도 경제적인 여

건만 허락한다면 자녀 세대와 따로 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변화의 상황에서 노인 세대는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노후 가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가정생활의 운영 주체가 부부가 되므로 노부부의 가정생활 관리능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부부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단독가구의 노부부들은 동거 가족 없이 부부만 생활하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감과 결속감이 더 증진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성격변화 및 역할 전환 등 노년기의 변동

* 주 저 자 : 박은아 (E-mail : shea1212@hanmail.net)

과 도전을 경험하면서 제한된 공간속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부부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의 갈등이 보다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만족감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부부는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해 가며 부부간의 상호존재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고(박민자, 1984; Noller & Fitzpatrick, 1990),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가능케 하여(이정우·박혜경, 1992)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Lewis & Spanier, 1979; 김경신·김진희, 1998; 김경신·박은주, 1996).

노부부 역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갈등이 낮고(김경신·이선미, 2001; 김혜경, 1996; 전길양·임선영, 1998) 결혼 및 생활만족도도 높으나(김혜경, 1996; 서병숙·김수현, 2000; 박지은, 2001),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사소통은 감소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대하고 생활만족감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Komarovsky, 1964; 김태현, 1998).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노부부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여되거나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노후 가정생활 및 삶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노년기 부부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상호간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년기 부부의 상호작용, 특히 노부부간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학 분야에서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몇 편(김선우, 2002; 김영나, 2001;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 이혜옥, 2000)만이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부와 단독가구 노부부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단편적으로 연구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단독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일반적인 노년기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는 전망(성지미·이윤정, 2001; 심영, 2000)과 또한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노부부 가정에서는 부부의 원만한 상호작용, 즉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단독가구의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단독가구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이들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단독가구 노부부의 의사소통 능력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노후 가정생활에서의 만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생활개선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련 연구

Rice(1979)는 의사소통이란 사람들간의 감정, 태도, 사실, 신념 및 사상의 전달과정으로, 개인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 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Gross 등(1980)은 의사소통을 개인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으로서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Deacon과 Firebaugh(1975)는 메시지가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송신자에게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Bienvenu(1970)는 생물체 사이의 느낌, 태도, 사실, 믿음, 사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개인간에 서로 다른 상황을 이해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의사소통을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관점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의사소통이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형성 과정으로서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 감정,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부간 의사소통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노부부간에 서로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년기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의해 청년기나 중년기의 의사소통과 달리 더 신중을 기하며(Botwinick, 1973),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더 꺼려하고, 상대방에게 대담해 주거나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Ryan, Kwang See, Meneer & Trovate, 1994; Tamir, 1979). 또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하며, 적절한 질문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등 의사소통의 장애에 직면하기도 한다(Feier & Gerstman, 1980; Tamir, 1979).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 권위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어 오면서 부부관계가 분리되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다. 또 여자노인의 경우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부부는 서로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계획도 혼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경향(임정빈 등, 1995)이 있다. 이처럼 노부부간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의사소통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 노인 세대에서는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적인 주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활발

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노년기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적고, 노부부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국내 가정학 분야에서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노년기 부부관계, 부부갈등, 부부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 결혼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부부관계 변인의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여 배경변인으로만 다루어 왔다(김경신·이선미, 2000, 2001; 김혜경, 1996; 윤영, 1990; 이선미·김경신, 2002; 임선영·김태현, 2002; 전길양·임선영, 1998). 이에 비해 노부부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몇 편(김선우, 2002; 김영나, 2001;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 이행옥, 2000)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옥(2000)은 노부부의 의사소통과 중재방안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노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중재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는 노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은 많지만 의사소통 빈도와 일치도는 비교적 낮고, 쌍방적·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으며, 배우자와의 대화에 불만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노인이 더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전반적 의사소통 만족도도 높았고, 남자노인이 건강문제 등보다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자노인은 자녀 및 집안문제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노부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나(2001)의 연구에서는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에 비교적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문제, 자녀 및 손자녀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일상생활이나 여가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대화시간은 30분~1시간이 26.5%, 1시간~2시간이 25.7%로, 절반 정도(52%)가 30분에서 2시간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시간은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화정도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2002)에 의하면 남녀노인의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가장 많고, 요구-철회, 상호회피, 손상적 의사소통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부정적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는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노인의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도, 일치도 순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의사소통효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부부의 가구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노부부와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부를 모두 포함하여 그들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녀 혹은 부부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포함시켜 배경변인으로서 성별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 차이만을 단순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서 가족형태에 따라 자녀동거 노부부와 단독가구 노부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었으며(김선우, 2002; 이정우·박은아, 2003), 성별에 따라 노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도 차이가 있음(김선우, 2002; 김영나, 2002;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을 볼 때, 가구형태를 구분하여, 그리고 남남을 구분하여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 가운데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및 그 차이를 보다 심도있게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독가구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관련변인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연령이 낮은 노인이 대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영나, 2001), 연령이 높은 남자노인이 부정적 의사소통유형인 요구-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우, 2002), 여자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쌍방적 대화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은, 2001). 반면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사소통효율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2) 학력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의사소통효율성과 대화정도가 높게 나타났고(김영나, 2001),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우·박은아, 2003), 학력이 높은 노인이 부부간에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은, 2001).

(3) 종교유무

종교가 있는 노부부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대화정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영나, 2001), 종교가 있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우, 2002), 종교가 일치하는 노부부간에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박지은, 2001). 그러나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이 종교유

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은 노부부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 및 대화정도 높을 뿐 아니라 대화시간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영나, 2001), 박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건강이 좋은 노인이 부부간에 쌍방향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생활비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월평균생활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경제상태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노인들이 높은 의사소통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우·박은아, 2003),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다(박지은, 2001). 또한 자신의 경제상태에 여유가 없다고 지각하는 남자노인은 부정적인 상호회피 의사소통과 요구-철회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6) 직업유무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김영나, 2001; 이정우·박은아, 2003)은 노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도 여자 노인의 경우 직업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은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이 있는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직업이 없는 남자노인은 부정적 유형인 상호회피, 요구-철회, 손상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단독가구 형성 기간 및 단독가구 지속 의향

단독가구 형성 기간이나 단독가구 지속 의향과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노부부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노부부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해 온 기간, 그리고 앞으로도 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형태로 생활하기를 원하는지의 의향이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심리적 변인

(1) 관계지향성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 하나인 관계지향성과 노인의 의사소통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노인들은 부부간에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2) 성역할태도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효율성이 서로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주부의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하상희·이정우, 1996)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와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의사소통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으며(이정우·박은아, 2003),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우, 2002).

(4) 내외통제성

노인의 내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노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이정우·박은아, 2003), 내외통제성과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5) 부부간 친밀감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에 친밀감이 강할수록 노부부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김경신·이선미, 2001)를 고려해볼 때 부부간 친밀감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6)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노인의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과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노인들이 높은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우·박은아, 2003), 또한 생활수준과 관계가 있는 노인의 경제상태와 의사소통 간의 관련성(김선우, 2002; 박지은, 2001; 이정우·박은아, 2003)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은 의사소통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 수준은 어떠한가, 남녀노인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사회인구학적·심리적)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선행연구를 기초로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종교유무, 건강상태, 직업유무, 월평균생활비, 단독가구 형성기간, 단독가구 지속 의향 등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심리적 변인으로 관계지향성과 관련하여서는 Robin 등(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한 양정운(1999)의 설문을 토대로 6문항($\alpha=.56$)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서는 Rosenberg(1965)의 연구를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설문을 토대로 8문항($\alpha=.75$)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에 관한 척도는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한 강기연(2000)의 설문을 토대로 7문항($\alpha=.81$)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내외통제성과 관련하여서는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I-E) 척도를 참고로 한 김혜정과 이기영(1997)의 설문을 토대로 9문항($\alpha=.69$)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부부간 친밀감과 관련하여서는 Broucke등(1995)의 척도를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10문항($\alpha=.81$)을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 척도는 Davis(1981), Dillard(1987)의 연구를 토대로 박미금(1993)이 작성한 2문항($\alpha=.89$)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간 의사소통¹⁾의 경우 선행연구(김영나, 2001; 심혜선·이

정우, 2001; Bienvenu, 1970; Powers와 Hutchinson, 1979)를 토대로 부부간 의사소통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정도(7문항, $\alpha=.84$), 의사소통 일치도(8문항, $\alpha=.86$), 의사소통 개방도(10문항, $\alpha=.89$)의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총 25문항($\alpha=.94$)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만 생활하는 만 60세 이상²⁾ 80세 미만의 단독가구의 남녀노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년 2월 17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같은 해 5월 26일부터 7월 21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제가 불충분한 41부를 제외한 총 394부(남자노인: 186부, 여자노인: 20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남자노인은 70세 이상~80세 미만(44.6%)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68.7세였으며, 여자노인은 60세 이상~65세 미만(45.7%)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65.6세였다. 전체적으로 여자노인들에 비해 남자노인들의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 학력은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대졸이상(44.1%)이, 여자노인은 고졸(39.4%)이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들의 학력이 높았다. 본

1) 단독가구 노부부간에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자주 이야기하고(정도), 어느 정도 생각이나 의견의 조화와 일치를 잘 이루며(일치도), 또 어느 정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가(개방도) 하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대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2)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Erikson(1956)이나 Havighurst(1972)의 인생주기이론, Levinson(1978)의 인생계절론, 김종서 외 3인(1982)의 한국인의 발달과정 등에 따르면 노년기를 대체로 60세 이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남녀노인의 이와 같은 학력 분포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자노인의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 50.9%, 고졸 18.7%, 중졸 16.1%, 대학 이상 14.2%, 그리고 여자노인의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85%, 중졸 7.5%, 고졸 5.8%, 대학 이상 1.8% 순으로 나타난 통계청(2002)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남자노인(64.0%)과 여자노인(71.2%)이 종교가 없는 남자노인(36.0%)과 여자노인(28.8%) 보다 더 많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남자노인(60.2%)과 여자노인(53.4%)이 더 많아 남녀노인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다소 더 건강한 편이었다.

월평균생활비는 남자노인의 경우 200만원 이상(36%)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생활비는 162만원이었으며, 여자노인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34.1%)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생활비는 157만원이었다. 직업유무의 경우 남자노인은 직업이 있는 경우

(51.1%)가, 여자노인은 직업이 없는 경우(65.4%)가 많았으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조사 결과, 60세 이상 남자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8.9%, 여자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9.3%로 나타난 통계청 자료(2003. 8)와 유사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단독가구를 형성하게 된 기간을 보면, 남자노인은 5년 이상~10년 미만(35.5%)이, 여자노인은 5년 미만(32.7%)이 가장 많았고, 평균 단독가구 형성기간은 남자노인 7.58년, 여자노인은 7.60년으로, 남녀노인의 2/3 이상이 대체로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지속 의향을 살펴보면, 남녀노인(각각 81.2%, 76.4%)의 대다수가 자녀세대와 함께 동거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노부부 단독가구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특성

(N=394)

변인	구분	전체(N=394)		남자(N=186)		여자(N=208)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122	31.0	27	14.5	95	45.7
	65세 이상~70세 미만	150	38.1	76	40.9	74	35.6
	70세 이상~80세 미만	122	31.0	83	44.6	39	18.8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학력	초등학교 이하	60	15.2	15	8.1	45	21.6
	중졸	93	23.6	34	18.3	59	28.4
	고졸	137	34.8	55	29.6	82	39.4
	대학 이상	104	26.4	82	44.1	22	10.6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종교 유무	있다	267	67.8	119	64.0	148	71.2
	없다	127	32.2	67	36.0	60	28.8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다	66	16.8	28	15.1	38	18.3
	보통이다	91	23.1	32	17.2	59	28.4
	건강하다	237	60.2	126	67.7	111	53.4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월평균 생활비	100만원 미만	69	17.5	30	16.1	39	18.8
	100만원~150만원 미만	131	33.2	60	32.3	71	34.1
	150만원~200만원 미만	59	15.0	29	15.6	30	14.4
	200만원 이상	135	34.3	67	36.0	68	32.7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직업 유무	있다	167	42.4	95	51.1	72	34.6
	없다	227	57.6	91	48.9	136	65.4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단독가구 형성기간	5년 미만	126	32.0	58	31.2	68	32.7
	5년~10년 미만	132	33.5	66	35.5	66	31.7
	10년~15년 미만	92	23.4	44	23.7	48	23.1
	15년 이상	44	11.2	18	9.7	26	12.5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단독가구 지속의향	그렇다	310	78.7	151	81.2	159	76.4
	아니다	55	14.0	24	12.9	31	14.9
	고려중이다	29	7.4	11	5.9	18	8.7
	합계	394	100.0	186	100.0	208	100.0

한편 조사대상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심리적 변인의 수준은 <표 2>와 같다.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관계지향성 평균은 남녀 각각 3.27점과 3.25점,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54점과 3.47점, 성역할태도의 평균은 2.99점과 2.81점, 내외통제성의 평균은 3.55점과 3.49점, 부부간 친밀감의 평균은 3.48점과 3.29점,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의 평균은 3.14점과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부부간 친밀감에서 남녀노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더 근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권리와 이익을 갖는 전통적 역할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남성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다(이신숙·이경주, 1999)는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부부간 친밀감은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보다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부인보다 남편의 친밀감이 높게 나타난 이선미와 김경신(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2.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표 3>과 같다.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전체 부부간 의사소통은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 정도와 일치도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 개방도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남자노인 3.46점, 여자노인 3.37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대체로 원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기로 갈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저조하며(김은숙, 1983; 원효종, 1984),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고, 남녀차로 인하여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임정빈 등, 1995)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지적과는 달리 비교적 원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 대부분이 중간 수준 이상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영나(2001),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서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의사소통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김영나(2001)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변인 수준

(5점 만점)

변인	전체(N=394)		남자(N=186)		여자(N=208)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계지향성	3.26	.46	3.27	.45	3.25	.47	.47
자아존중감	3.50	.52	3.54	.53	3.47	.50	1.08
성역할태도	2.89	.70	2.99	.70	2.81	.70	2.64**
내외통제성	3.52	.48	3.55	.48	3.49	.47	1.41
부부간 친밀감	3.38	.53	3.48	.51	3.29	.54	4.11***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3.10	.93	3.14	.97	3.07	.89	.96

P<.01 *P<.001

<표 3> 조사대상자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5점 만점)

구 분		전체(N=394)		남자(N=186)		여자(N=208)		t값 및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정 도	3.49	.61	3.53	.62	3.46	.61	1.09
	일치도	3.33	.59	3.35	.61	3.30	.56	.84
	개방도	3.43	.61	3.49	.59	3.37	.63	1.98*
	전 체	3.41	.53	3.46	.53	3.37	.54	1.56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각각 의사소통 정도(3.53/ 3.46), 개방도(3.49/3.37), 일치도(3.35/3.30) 순으로 나타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중간 수준 이상이며, 또한 의사소통 정도, 개방도, 일치도 순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을 조사한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하위영역 가운데 의사소통 정도와 일치도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 개방도는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이 더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대화정도가 높다(김영나, 2001)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지만,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쌍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박지은, 2001)는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노인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김선우, 2002), 남자노인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다(이정우·박은아, 2003)는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1)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전체 부부간 의사소통에는 배경변인 가운데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변인 중 부부간 친밀감($\beta=.50$), 자아존중감($\beta=.14$), 성역할태도($\beta=-.1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8%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

<표 4>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N=186)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		전체	
			b	β	b	β	b	β	b	β
배 경 변 인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령	-0.00	-0.01	.01	.03	.01	.06	.01	.04
		학력	.00	.01	-0.00	-0.02	.00	.01	-0.00	.00
		종교유무	-0.00	-0.00	.06	.05	-.11	-.09	-.03	-.02
		건강상태	-.01	-.02	-0.00	-0.00	-.04	-.07	-.02	-.04
		직업유무	-.11	-.09	-.14	-.11	-.06	-.05	-.10	-.09
		월평균생활비	.00	.06	-0.00	-.09	-0.00	-.11	-0.00	-.06
		단독가구형성기간	-.01	-.08	-0.00	-.02	-.01	-.07	-.01	-.07
	단독가구 지속의향									
	그렇다	-.02	-.01	-.04	-.02	.02	.02	-.01	-.01	
	고려중	-.14	-.05	-.04	-.01	-.16	-.06	-.11	-.05	
인 변 인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	.07	.05	-.07	-.05	-.08	-.06	-.04	-.03
		자아존중감	.03	.03	.12	.10	.24	.22**	.14	.14*
		성역할태도	-.06	-.07	-.16	-.18**	-.08	-.10	-.10	-.13*
		내외통제성	-.03	-.02	.05	.04	-.03	-.03	-.01	-0.00
		부부간 친밀감	.51	.42***	.56	.47***	.51	.45***	.53	.50***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00	.01	.09	.14	.05	.07	.05	.09
상수			1.87		1.13		1.19		1.36	
R ²			.24		.35		.35		.38	
F-value			3.52***		6.03***		6.04***		6.86***	

* P<.05 **<.01 ***P<.001

* 직업유무 : 기준(무) 비교(유)
 종교유무 : 기준(무) 비교(유)
 단독가구 지속 의향: 기준(아니다) 비교(그렇다, 고려중이다)

간 의사소통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소통 정도에는 부부간 친밀감($\beta=.42$)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일치도의 경우에는 부부간 친밀감($\beta=.47$)과 성역할태도($\beta=-.18$)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5%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개방도에 대해서는 부부간 친밀감($\beta=.45$), 자아존중감($\beta=.22$)이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5%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존중하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우선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부부간 친밀감이 부부간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노부부의 친밀한 상호작용관계에 따라 노부부간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기 부부일수록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고(김경신·이선미, 2001),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결과(이선미·김경신, 2002)에 비추어 볼 때, 노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갈등정도도 낮고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생활에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친밀감은 일시에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부가 결혼초부터 서로 애정을 바탕으로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노년기까지 지속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노부부간 의사소통은 더욱 원활해지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노부부간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으며(이정우·박은아, 2003),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김선우,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부부간 의사소통은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몇몇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되므로(Sigel & Gould, 1979)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동기화되어 부부간 의사소통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하며(이경희, 1998; 조유리·김경신, 2000),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고 자신감을 가질 때 부부갈등이 낮음(김혜경, 1996; 윤영, 1990; 전길양·임선영, 1998)을 볼 때, 남자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태도를 갖는 것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단독가구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부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효율성(이정우·박은아, 2003)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남자노인일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전통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부관계가 분리되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으며,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이정우·박은아, 2003; 임정빈 등, 1995)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남자노인들은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관심을 두는 서구 가치관의 영향으로 우애적 혹은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들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에도 좀더 우애적·동반자적으로 임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전체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부부간 친밀감($\beta=.52$), 건강상태($\beta=.17$), 관계지향성($\beta=.15$), 단독가구 지속 의향($\beta=.14$)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8%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그리고 단독가구 지속을 희망하는 경우에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의사소통 정도에는 부부간 친밀감($\beta=.41$)과 관계지향성($\beta=.2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6%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일치도의 경우에는 부부간 친밀감($\beta=.45$), 건강상태($\beta=.16$), 관계지향성($\beta=.1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9%였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개방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부부간 친밀감($\beta=.50$), 건강상태($\beta=.18$), 월평균생활비($\beta=-.15$)였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월평균생활비를 적게 지출할수록 단독가구 여자

<표 5>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N=208)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정도		일치도		개방도		전체	
			b	β	b	β	b	β	b	β
배 경 변 인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령	.01	.06	.01	.07	.00	.02	.01	.05
		학력	.01	.07	.00	.00	.01	.05	.01	.05
		종교유무	-.08	-.06	-.00	-.00	-.02	-.02	-.03	-.03
		건강상태	.07	.10	.10	.16*	.13	.18**	.10	.17**
		직업유무	-.11	-.09	-.03	-.02	-.14	-.10	-.09	-.08
		월평균생활비	.00	.05	-.00	-.13	-.00	-.15*	-.00	-.10
		단독가구형성기간	.00	.02	.01	.08	.01	.11	.01	.09
	단독가구 지속의향	그렇다	.20	.14	.13	.10	.19	.13	.17	.14*
		고려중	.08	.04	-.07	-.04	.08	.04	.03	.02
심리적 변인	관계지향성	.26	.20**	.15	.13*	.13	.10	.17	.15**	
	자아존중감	.07	.06	-.07	-.06	-.02	-.02	-.01	-.01	
	성역할태도	-.07	-.08	-.02	-.02	-.02	-.02	-.03	-.04	
	내외통제성	.07	.06	.12	.10	.12	.09	.11	.10	
	부부간 친밀감	.47	.41***	.47	.45***	.58	.50***	.52	.52***	
	상대적 생활수준 지각감	.02	.03	.08	.13	.08	.11	.06	.11	
상수										
R ²										
F-value										

* P<.05 **<.01 ***P<.001

* 직업유무 : 기준(무) 비교(유)
 종교유무 : 기준(무) 비교(유)
 단독가구 지속 의향: 기준(아니다) 비교(그렇다, 고려중이다)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관계지향적 성향을 지니고, 계속 단독가구 형태로 부부만 생활하기를 희망할 때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간 친밀감은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전체 및 하위 영역별로 본 공통적 영향 변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남자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부부간의 친밀감은 부부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Moss & Schwebel, 1993)이며 두 사람의 상호 인정과 지지, 인지·감정·행동의 상호공유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간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도 노부부의 친밀감이 높을 때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노부부간의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에 부부간의 친밀한 상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건강상태가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이정우·박은아, 2003), 건강상태가 좋은 노부부가 높은 의사소통효율성 및 대화정도를 보일 뿐 아니라 대화시간도 충분히 갖고(김영나, 2001), 쌍방적 대화를 더 많이 한다(박지은, 2001)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건강은 개인의 행동반경이나 정도를 좌우하는 기본적 자원으로, 특히 노년기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생활에서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노부부간의 의사소통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노년기의 신체적 약화가 대부분의 노인에게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이므로(정해정·이동숙, 2000), 평소 심신을 단련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나, 단독가구 노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여자노인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좀더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에 임하므로 부부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일수록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노인은 더욱 배우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상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노인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한다(이정우·박은아, 2003)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친밀감을 더 많이 추구하고(Beck, 1983),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요구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임승락, 1998)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여자노인의 관계지향적 성격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끝으로 단독가구의 지속을 희망하는 여자노인일수록 원활한 부부간 의사소통을 보인 것은, 노인의 자녀와의 동·별거는 노인의 개인적·가족관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정혜정·이동숙, 2000)는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의 측면에서 동질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있는 노인들은 세대간 별거를 선호하고(이가옥 등, 1994; 이가옥·김정석, 1995),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거주형태를 취하는 반면에(Eu, 1992, 유성호, 1996 재인용), 건강치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Kivett & Leamer, 1982) 보고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상태가 여유로운 노부부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박은아, 2003).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여자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건강하다 53.4%, 보통이다 28.4%)하고, 평균 월평균생활비도 다소 높은 편(157만원)이며, 또 단독가구의 지속을 희망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76.4%)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계속 단독가구 형태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여자노인의 경우, 좋은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이 직접적으로는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배가시키고 정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부간 친밀감은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공통적인 영향 변인이며, 4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을 조사한 이정우와 박은아(2003)의 연구에서 부부간 친밀감이 의사소통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부간 친밀감은 일반적인 노년기 부부뿐만 아니라 단독가구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단독가구 노부부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친밀하고 긴 대화를 가질수록 서로 가까워지는 반면에 한정되고 짧은 대화만을 가질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은 약화되며(Hawkins et al., 1977), 아울러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Bienvenu, 1970)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노부부 단독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노부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단독가구 노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시하여 이들 결과가 노부부 관계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관련 교육과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은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노년기로 갈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저조하며,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고, 남녀차로 인하여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지적과는 달리 단독가구 남녀노인 모두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다. 그러나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개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의사소통에서의 남녀(부부) 차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의 교육현장에서 성차에 따른 남녀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며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은 지속적인 훈련이 중요하므로 평생교육 측면에서 부부 대상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부부간 친밀감,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가,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부부간 친밀감, 건강상태, 관계지향성, 단독가구 지속 의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는 부부간 친밀감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각기 다른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친밀감은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의 공통적인 영향 변인이나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단독가구 노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감정과 행동을 공유하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부부 각자 배우자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존중하는 마음 자세로 부단히 노력할 때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시 노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노부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측면에도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서로 다른 점도 나타났으므로 단독가구 노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부(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즉 남자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선 남자노인 스스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이고 또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아직도 필요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사랑과 신뢰,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지지적인 가족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노인들이 성취감이나 기여감,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및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남자노인(남편)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전환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가치관교육은 단시간에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어려서부터 합리적이고 융통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상태, 관계지향성, 단독가구 지속 의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선 여자노인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심신 단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건강정보·교육을 확대 제공하고,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체력단련 서비스 등 실제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적극 실시하여 노인에게 종합적인 건강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부부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에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노인 개인의 관계지향적 성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격을 개선하려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병행될 때 노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간 지속해온 노인의 성격 특성은 특히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노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서는 이러한 여자노인들의 성격특성을 세심히 배려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단독가구 남녀노인이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의무와 책임감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전통적 사회와 달리 부부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친밀한 부부관계는 노부부의 의사소통 증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노부부는 과거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허물고 동반자적·우애적 부부관계로 새롭게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교육 과정에서 바람직한 노부부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또 이를 실제 가정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증재하는 노인복지관이나 구단위 종합복지관 등 적극적인 연계체계가 더욱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육적 방안과 실행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방적 응답을 토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파악하였는데,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작용 과정이므로 앞으로는 노부부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느 한 쪽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부를 쌍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가족적 특성을 포함하는 척도의 보완이 이루어져 노부부의 상호작용을 더욱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접수일 : 2005년 01월 14일

심사일 : 2005년 01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5년 03월 10일

【참 고 문 헌】

- 김경신·이선미(2000).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9, 89-106.
- 김경신·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0, 31-54.
- 김경신·이선미(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39-153.
- 김영나(2001).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전길양(1998).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67-182.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주관적 경제 수준 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김수현(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1), 55-67.
- 심혜선·이정우(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29-145.
- 양정운(1999).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과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 성격-사건 일치기설과 증상특정성기설.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유성호(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윤영(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김정석(1995). 노인의 자녀별거 결정요인 분석. *성공회대학논총*, 8, 42-53.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선미·김경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이신숙·이경주(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1-13.
- 이정우·박은아(2003). 노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25-44.
- 이정우·박혜경(1992). 부부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7, 3-23.
- 이행옥(2000).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과 중재방안. *원주대학 학술논총*, 32, 17-29.
- 임선영·김태현(2002).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6.
- 임승락(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5). *가정관리학*. 학지사.
- 전길양·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6), 1-12.
- 정혜정·이동숙(2000). 부부단독가구 노인과 자녀동거 가구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변인 연구: 전북지역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67-91.
- 조유리·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 지역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하상희·이정우(199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참여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1, 23-46.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Allen, S. M., Goldscheider, F., & Ciambone, D. A.(1999). Gender roles, marital intimacy, and nomination of spouse as primary caregiver. *The Gerontologist*, 39(2), 150-158.
- Burleson, B. R., & Denton, W. 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 Some moderation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Nov), 884-902.
- Halford, W. K., Hahlweg, K. & Dunne, M.(1990). The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marital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87-500.
- Klinetob, N. A., & Smith, D. A.(1996).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in marital interaction : Tests of interspousal contingency and gender role hypothe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45-957.
- Krause. N.(1995). Religiosity and self-esteem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0B(5), 236-246.
- Krause. N.(1997). Religion, aging, and health: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Gerontology*, 52B(6), S291-S293.
- Moss, B. & Schwebel, A.(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Noller, P., & Fitzpatrick, M. A.(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Richmond, V. P., McCroskey, J. C., & Roach, K. D.(1997).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styles, power base usage, and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Communication Quarterly*, 45(4), 410-426.
- Tower, R. B., & Kasl, S. V.(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s. *Journal of Gerontology*, 51(B), 115-129.
- Towsend, A. L., & Franks, M. M.(1997).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spouses : Influence on spouse caregivers' subjective effectiveness. *Family Relations*, 46(1), 33-39.

<부록 1>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요인분석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COM MUN ALITY
25.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74	.17	.10	.59
24.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준다.	.67	.24	.10	.52
23. 우리 부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2	.31	.26	.55
22.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한다.	.62	.20	.42	.60
21. 우리 부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61	.20	.41	.59
20. 우리 부부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먼저 들어준다.	.61	.25	.16	.46
19. 우리 부부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60	.33	.20	.50
18. 우리 부부는 비밀스런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는다.	.51	.38	.27	.47
17. 우리 부부는 하루 일과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50	.23	.38	.45
16. 우리 부부는 각자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한다.	.50	.37	.22	.44
15. 우리 부부는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7	.69	.06	.56
14. 우리 부부는 재정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18	.65	.28	.53
13.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6	.64	.10	.48
12. 우리 부부는 의·식·주 생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2	.62	.33	.53
11.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38	.60	.26	.56
10.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녀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14	.58	.41	.52
9.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41	.58	.14	.52
8.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한다.	.28	.53	.36	.49
7. 우리 부부는 재정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0	.19	.71	.57
6. 우리 부부는 자녀나 손자녀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3	.16	.70	.54
5. 우리 부부는 가족행사나 모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0	.29	.69	.57
4.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42	.10	.64	.59
3. 우리 부부는 의·식·주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9	.15	.63	.50
2. 우리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6	.37	.54	.45
1. 우리 부부는 부부생활(애정, 건강, 성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40	.17	.45	.39
Eigen Value	10.22	1.50	1.26	51.88
% of Var	40.87	5.99	5.02	

요인1: 의사소통 개방도, 요인2: 의사소통 일치도, 요인3: 의사소통 정도